

2022년 1분기 공연시장 동향

- ◆ 분석 대상 기간 : 2022. 1. 1. ~ 3. 31 (공연일자 기준)
- ◆ 데이터 추출일 : 2022. 4. 4.(월) 추출
- ◆ 보고서 발행일 : 2022. 4. 14.(목)

종 합	강은경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외래교수
연 극	김일송 조한성	이안재 대표 (주)스토리피 대표
뮤지컬	김용제 박병성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공연칼럼니스트
클래식	박진학 윤보미	스테이지원 대표 봄아트프로젝트 대표
무 용	양은혜 윤대성	춤in 편집장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국 악	김태민 송현민	국악신문사 대표 월간 객석 편집장
데이터 분 석	김혜진 이재원 이다운 강유정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팀장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주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주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일러두기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공연법 제4조, 제43조」에 의거하여, 분산된 공연 입장권 예매/취소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 정보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현재,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주요 예매처와 자체발권시스템을 보유한 공연장 등 전국 총 162개 티켓발권시스템과 연계되어 매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1. 공연장운영자
 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보고서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공연 장르별 전문가 11명의 현장에 대한 통찰을 종합하여 구성한 보고서입니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공연법 제4조가 시행된 2019년 6월 이후부터입니다. 때문에 이전 데이터 분석 비교는 제외하였습니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연극·뮤지컬·클래식·오페라·무용·국악·복합 7개 장르로 구분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클래식과 오페라를 통합하여 분석합니다.
- 「2022년 1분기 공연시장 동향」은 2022년 4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기간의 공연일자 기준 티켓예매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4월에 있을 공연이 3월에 티켓예매를 시작했더라도 1분기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월~4월에 공연되는 경우에도 3월 31일까지의 데이터만 포함됩니다.
- 매일 단위로 예매·취소 값이 발생하는 공연예매데이터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추출일자가 다를 경우, 결과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kopis@gokamsor.kr)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분기 공연시장 동향 [종합]

- (1분기 동향) 2022년 1분기는 최근 2개년 동기 대비, 공연 분야 전 장르에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 특히 정부의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등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형 공연장 공연 및 창작 공연 등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1분기는 지난 2년의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특성 및 영향이 잔존 하였으며, 그러한 특성이 시장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향후 전개 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분기 시장) '22년 1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총 2,296건의 공연으로 약 218만 장의 티켓예매와 약 1,075억원의 티켓판매가 이루어졌다.
 - '22년 1분기의 공연건수는 '21년 대비 약 83%, 공연회차는 약85% 증가한 수치이다.
 -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은 '20년·'21년 동기간 대비 증가 추세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보다 공연건수는 약 107% 증가한 반면 티켓판매액은 50% 증가하였다.
 - '22년 1분기 기준 '공연 1건 당 평균 티켓판매액'은 약 4천7백만원으로, '21년보다 41% 증가했고, '공연 1회차당 평균 티켓판매액'은 약 640만원으로 '21년보다 약 40% 증가했다. 반면, '티켓 1매당 평균 판매액'은 약 4만3천원으로 '21년과 비슷하다.

< 최근 3년간 1분기, 공연 전체 시장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건)	2,296	1,254	1,111	83%	107%
공연회차(회)	16,711	9,036	15,576	85%	7%
티켓예매수(건)	2,185,637	849,330	1,712,207	157%	28%
티켓판매액(원)	107,476,296,497	41,768,754,941	71,681,351,698	157%	50%
공연 1건 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46,810,234	33,308,417	64,519,668	41%	-27%
공연 1회차 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6,431,470	4,622,483	4,602,039	39%	40%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49,174	49,178	41,865	0%	17%

□ (시기적 특징) 2022년 1분기는 전통적 공연 비수기이며, 코로나19의 연속적 변화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이다.

- 공연시장의 1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이다. 대부분 지원사업 선정 발표를 기다리는 시기인 동시에, 연말특수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로 공연마니아 외에 일반관객 유치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 1분기는 지난 2년의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특성 및 영향이 잔존하였으며, 그러한 특성이 시장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향후 전개 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가 생활의 변화로 방송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공연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르에 따라서는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한편, 코로나19와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공연 마니아 층 이외의 일반 관객들은 공연 관람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 한국은행의 '2022년 1~3월 소비자동향조사'의 '소비자심리지수(CCSI)'에서도 올 1분기 소비심리가 낮다. 확진자 수가 1월까지 감소하여 다소 좋아졌으나, 2~3월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2022년 3월까지의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한국은행) >



□ (현장의 변화 상황)

- (대중적 영향) 여가 생활의 변화로 국악, 클래식 등 방송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공연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르에 따라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관객 변화) 현장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관객은 역설적으로 마니아층이 공고해지고 있고, 관객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 마니아층과 달리 일반 관객에게 공연은 감상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 친목, 사교, 여가 활동의 일환인 경우가 많으므로 활동이 제약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체재를 찾으려는 경향이 반영되었다 볼 수 있다.
 - 젊은 세대의 경우 해외이동 등 여가 활동의 동선이 제한되면서 공연장이 대안적 여가 선용의 장소로서 새로운 마니아 관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공연 영상) 코로나19로 공연도 비대면 형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향후 현장 공연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의 온라인 공연이 위상을 구축해 나갈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 국공립 예술단체의 경우 지자체 등의 방침에 따라 기존 대면방식의 현장 공연이 대폭 축소되면서 온라인 공연 콘텐츠로의 전환이 있었으나 대부분 무료이거나 실험적 단계로, 시장에서의 유의미한 수익모델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분기 공연시장 동향 [특성종합]

- (장르별 시장 종합) '22년 1분기에는 클래식(1,108건) 공연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연회차는 연극(7,634회)과 뮤지컬(7,238회)이 약 90%를 차지한다. 반면, 총 티켓판매액은 뮤지컬(880억원)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 평균 공연회차는 7.3회이며, 장르별로는 연극이 18.7회로 가장 많고, 뮤지컬은 13.2회이다. 반면 클래식은 1.1회, 무용과 국악은 1.8회로 공연회차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 총 티켓판매액은 뮤지컬(약 880억원), 연극(약 87억원), 클래식(약 82억원) 순이다. 티켓예매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은 약 4만 9천원, 뮤지컬은 약 6만 4천원, 국악은 약 5만 3천원인 반면 연극은 약 1만 8천원이다.
- 공연건수 기준 티켓판매액은 뮤지컬, 연극, 복합, 국악, 무용, 클래식 순이며, 공연회차 기준 티켓판매액은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연극 순으로 나타난다.

< 2022년 1분기, 공연 장르별 공연건수, 공연회차, 티켓예매수 >

구분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공연건수 (건)	비중 (%)	공연회차 (회)	비중 (%)	평균공연회차 (회)	티켓예매수 (건)	비중 (%)
전 체	2,296	100%	16,711	100%	7.3	2,185,637	100%
연 극	408	18%	7,634	46%	18.7	472,596	22%
뮤지컬	547	24%	7,238	43%	13.2	1,374,429	63%
무 용	51	2%	93	1%	1.8	21,158	1%
클래식	1,108	48%	1,218	7%	1.1	275,758	13%
국 악	148	6%	263	2%	1.8	30,506	1%
복 합	34	1%	265	2%	7.8	11,190	1%

< 2022년 1분기, 공연 장르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
	티켓판매액 (원)	비중 (%)	티켓예매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 (원)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 (원)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 (원)
전 체	107,476,296,497	100.0%	49,174	46,810,234	6,431,470
연 극	8,682,782,817	8.1%	18,373	21,281,330	1,137,383
뮤지컬	88,067,248,690	81.9%	64,076	161,000,455	12,167,346
무 용	471,711,500	0.4%	22,295	9,249,245	5,072,167
클래식	8,195,762,040	7.6%	29,721	7,396,897	6,728,869
국 악	1,629,007,750	1.5%	53,400	11,006,809	6,193,946
복 합	429,783,700	0.4%	38,408	12,640,697	1,621,825

- '20년, '21년을 지나면서 장르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티켓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회복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단, 무용은 '20년 대비 티켓판매액이 감소했는데, '20년~'21년은 예매가 필요없는 온라인 무료 공연(스트리밍 혹은 녹화본)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졌기에 KOPIS 집계 공연수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티켓판매액만으로 무용의 회복이 늦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최근 3년간 1분기, 공연 장르별 시장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티켓 판매액(원)	2021년 1분기 티켓 판매액(원)	2020년 1분기 티켓 판매액(원)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전 체	107,476,296,497	41,768,754,941	71,681,351,698	157%	50%
연 극	8,682,782,817	5,209,650,931	5,704,266,787	67%	52%
뮤지컬	88,067,248,690	32,378,799,330	62,361,582,089	172%	41%
무 용	471,711,500	323,892,900	589,847,400	46%	-20%
클래식	8,195,762,040	3,748,430,980	2,819,442,872	119%	191%
국 악	1,629,007,750	82,637,700	144,594,400	1,871%	1,027%
복 합	429,783,700	25,343,100	61,618,150	1,596%	597%

- (장르별 특징) 장르별 공연건수, 공연회차, 티켓판매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 전반적인 공연의 제작기간을 고려하면 공연건수는 상대적으로 빠른 대처가 어려운 값인 반면, 회차수는 보다 유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 공연건수는 정부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거리두기 객석제의 안정화, 거리두기 규제 완화 등으로 '21년 기획, 제작을 시작하여 회복세를 보인 반면, '20-'21년의 공연 취소에 대한 학습된 공포가 공연 기간 중에 불안정한 미래 상황에 대비한 회차의 축소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 연극과 뮤지컬을 제외하고 다회차 공연으로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른 장르 작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특히, 공연회차는 관객수요에 기반할 수밖에 없기에 상업성 없는 무용, 클래식, 전통국악 공연의 회차는 2회를 넘기기 어렵다.

- 연극의 공연회차가 많은 것은 다수의 출연자, 더블캐스팅의 형평성 등 고려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주 7회~8회 공연한다. 일례로, 일부 공공극장들도 연극은 2주 대관을 기본으로 한다.
 - 클래식 공연은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어서 유료 시장이 협소하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도 서울에서 1~2회 회차에 그치며, 많은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들이 귀국 독주회나 자기 자본으로 개최되는 공연 등은 유료 관객 시장에 포함되기 어려운 형태다.
 - 상반기 무용 장르가 특히나 저조한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장르 성격이에 기인한 것이다. 연말부터 연초(약 3월까지)까지 공공기관 지원기간으로, 보통 무용의 1분기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 국립단체 공연이 이뤄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 국악도 '시장'보다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장르다. 그러하기에 '보존' '전승' '계승' 등의 명목으로 국립·시립 관련 기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공연장르에 비해 높다. 국립·시립의 지원이 잠깐의 휴지기를 갖는 1·2월은 공연이 별로 없고, 국악공연의 활성화는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3월부터다.
- (지역별) 올 1분기 서울지역의 공연건수는 전체의 약 75%, 티켓 판매액은 약 81%로 공연시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 서울·경기도·부산·대구 4개 지역이 국내 공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 서울의 시장점유율은 '21년보다 약 6%p 감소했고, 코로나19 초기의 타격을 컸던 대구 지역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뮤지컬의 티켓판매액 비중이 크다.
 - 부산 지역 전체의 티켓판매액에서 뮤지컬이 약 77%, 연극이 약 6%로 큰 비중이며, 대구지역 전체의 티켓판매액에서는 뮤지컬 약 68%, 클래식이 27%로 나타난다.

< 2022년 1분기, 주요 4개지역 공연 현황 >

지역	공연건수		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	(건)	(%)	(천원)	(%)
서울	12,449	75%	1,690,637	77%	87,356,019,591	81%
경기도	943	6%	148,555	7%	5,240,789,072	5%
부산	695	4%	74,294	3%	4,540,882,462	4%
대 구	673	4%	72,993	3%	3,049,344,630	3%

< 2020년~2022년 1분기, 지역별 시장 티켓판매 비중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포인트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포인트
서울	81%	87%	84%	-6%p	3%p
경기도	5%	2%	2%	3%p	3%p
부산	4%	7%	9%	-3%p	-5%p
대 구	3%	1%	1%	2%p	2%p

< 2020년~2022년 1분기, 지역별 장르의 티켓판매 비중 현황 >

구분	연극		뮤지컬		클래식	
	티켓판매액(원)	비중(%)	티켓판매액(원)	비중(%)	티켓판매액(원)	비중(%)
서울	7,866,008,877	9%	73,423,208,664	84%	8,195,762,040	9%
경기도	183,858,952	4%	3,998,024,220	76%	612,414,800	12%
부산	272,663,308	6%	3,515,131,454	77%	382,088,650	8%
대 구	129,007,080	4%	2,066,322,550	68%	836,776,000	27%

- (가족공연) 을 1분기의 가족극은 전체 공연건수의 약 19%인 433건, 전체 티켓판매액의 약 11%인 약 11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가족공연 : 관람가능 연령에 아동(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포함되는 공연

- 장르 중에서는 뮤지컬이 공연 377건(가족공연의 87%)의 티켓판매액은 약 115억원으로 전체 뮤지컬 시장의 약 13%를 차지한다.

- 뮤지컬에서 가족공연은 공연 건수는 높으나 티켓가격이 저렴하고 소극장 규모의 작품이 많다 보니 공연 건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높지 않다.

< 2022년 1분기, 아동공연 현황 >

아동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액 (원)		
	전체공연	가족공연	비중	전체공연	가족공연	비중
전 체	2,296	433	100%	107,476,296,497	11,706,137,950	100%
연 극	408	31	7%	8,682,782,817	77,918,490	1%
뮤지컬	547	377	87%	88,067,248,690	11,538,351,960	99%

□ (공연장 규모별) 올 1분기 공연현황을 공연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대극장(1,000석이상)의 공연건수는 전체의 약 19%(434건)이나, 티켓매출액은 약 72%(약 770억원)을 차지한다.

○ 최근 2년에 비해 공연장 규모별 공연건수와 티켓판매액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0석 이상의 중·대 규모 극장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난다.

- 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관객을 많이 모아야 하는 대극장 공연의 시도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뮤지컬처럼 장기간의 기획 공연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대극장 공연 기획은 쉽지 않다 보니 500석 이상의 공연들이 '20년 '21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1분기, 공연장 규모별 공연건수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공연건수		2021년 1분기 공연건수		2020년 1분기 공연건수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건	비중	건	비중	건	비중		
합계	2,296	100%	1,254	100%	1,111	100%	83%	107%
1,000석 이상	434	19%	192	15%	136	12%	126%	219%
500~1,000석 미만	483	21%	232	19%	185	17%	108%	161%
300~500석 미만	561	24%	322	26%	286	26%	74%	96%
100~300석 미만	596	26%	378	30%	394	35%	58%	52%
100석 미만	222	10%	130	10%	110	10%	71%	102%

< 2020년~2022년 1분기, 공연장 규모별 공연 건수 및 티켓매출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티켓 판매액 (원, 비중)		2021년 1분기 티켓 판매액 (원, 비중)		2020년 1분기 티켓 판매액 (원, 비중)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합계	107,476,296,497		41,768,754,941		71,681,351,698		157%	50%
1,000석 이상	77,013,654,563		29,682,345,778		49,288,204,705		159%	56%
	71.7%		71.1%		68.8%			
500~1,000석 미만	13,513,194,280		3,031,987,650		7,776,372,184		346%	74%
	12.6%		7.3%		10.8%			
300~500석 미만	9,054,562,667		5,817,029,762		8,816,986,651		56%	3%
	8.4%		13.9%		12.3%			
100~300석 미만	7,377,918,042		3,005,643,745		5,629,403,458		145%	31%
	6.9%		7.2%		7.9%			
100석 미만	516,966,945		231,748,006		170,384,700		123%	203%
	0.5%		0.6%		0.2%			

- (대학로 공연) 올 1분기 동안 대학로에서는 뮤지컬과 연극 위주의 총 268건의 공연으로 총 약 141억의 티켓판매가 이루어졌다.
- 1분기 전체 공연건수의 약 12%, 전체 티켓판매액의 약 13% 수준이다.
 - 대학로 총 268건의 티켓판매액(약 141억원) 보다, 뮤지컬의 해외 내한공연 3건의 티켓판매액(약 155억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대학로는 연극 공연 203건(대학로 공연의 약 76%)의 티켓판매액은 약 45억원인 반면, 대학로 뮤지컬 공연은 53건(대학로 공연의 24%)의 티켓판매액은 약 96억원으로 대조적인 상황이다.
 - 대학로 뮤지컬이 대극장 뮤지컬에 비해 저렴하긴 하나, 대학로 뮤지컬에 비해 연극의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수도 있다.
 -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20대 초반의 일반관객 유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대학로 연극에서 큰 시장을 차지했던 '저가 로맨틱 연극' 작품들이 고전하는 것도 이유일 것이다.
 - 최근 2년의 티켓판매액 규모를 보면, 뮤지컬 장르의 증가세 외에 연극·클래식 장르는 '20년 1분기의 시장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 대학로 뮤지컬 시장은 마니아적인 성격이 강해서 코로나에도 꾸준히 시장을 지키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무너진 영향이 있다.

< 2022년 1분기, 대학로 공연 장르별 현황 >

아동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액 (원)		
	전체공연	대학로	비중	전체공연	대학로	비중
전 체	2,296	268	100.0%	107,476,296,497	14,180,520,286	100%
연 극	408	203	75.7%	8,682,782,817	4,566,600,077	32%
뮤지컬	547	63	23.5%	88,067,248,690	9,611,450,209	68%

< 2020년~2022년 1분기, 대학로 공연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티켓판매액(원)	2021년 1분기 티켓판매액(원)	2020년 1분기 티켓판매액(원)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전 체	14,180,520,286	7,308,403,367	10,123,040,057	94%	40%
연 극	4,566,600,077	2,271,397,507	4,162,321,637	101%	10%
뮤지컬	9,611,450,209	5,036,631,860	5,954,792,420	91%	61%

□ (내한공연) 올 1분기의 내한공연은 총 13건(전체의 약 1%)에 불과하나, 티켓판매액은 전체의 약 15%인 약 16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내한공연 : 해외 뮤지컬 오리지널 투어, 해외 연주자 등이 한국에서 공연하는 공연

○ 뮤지컬의 해외 오리지널 투어 3편의 총 매출액은 약 155억원으로 전체 뮤지컬 티켓판매액의 약 18%를 차지한다.

○ 클래식의 내한공연은 1분기 총 10건, 총 약 8억원의 티켓판매액을 보였는데, '22년 1분기를 시작으로 내한 공연이 증가하고 있다.

- 뮤지컬은 1건의 공연이 수십회차의 공연으로 티켓 매출이 높은 반면, 클래식은 1~2회차 공연이 주를 이루어 공연건수에 비해 회차가 적고, 티켓판매액도 작다.

< 2022년 1분기, 내한공연 현황 >

아동	공연건수 (건)			티켓 판매액 (원)		
	전체공연	내한공연	비중	전체공연	내한공연	비중
전체	2,296	13	100%	107,476,296,497	16,336,624,140	100%
뮤지컬	547	3	23%	88,067,248,690	15,515,516,140	95%
클래식	1,067	10	77%	7,914,437,440	821,108,000	5%

○ 마케팅 측면에서 소비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안전한 소비, 즉, 브랜딩이 유명한 것에 가치소비를 하는 현상이 높아진다. 또한, 오미크론확산으로 상대적으로 공연소비가 선택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해외여행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오리지널 공연에 대한 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공연시장은 결국 대형 프로젝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한국 공연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명작 해외투어 공연이 성과를 내고 있다.

- 이런 공연들은 평소 공연에 관심이 적은 일반 관객들까지도 공연 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영향력과 구매력이 높다. 특히 라이온 킹 같이 전 연령대를 흡수하기 좋은 작품은 시장 파괴력이 있다.

○ 결국 해외 투어 공연은 공연시장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창작뮤지컬에서 킬러 콘텐츠가 나와야 선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2022년 1분기 공연시장 동향 [장르별]

연극

- (연극 1분기 시장) 올 1~2월 동안 연극 공연은 총 408건, 티켓예매수는 약 4만 7천건, 티켓판매액은 약 8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연극 장르의 공연건수는 전체의 약 18%를, 티켓판매액은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 '22년 1분기 연극시장은 '21년에 비해 시장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티켓예매수 증가율('20년대비 36%)에 비해 티켓판매액 증가율('20년대비 50%)이 높아졌다.
 - 공연건수 대비 티켓판매액은 최근 3년간 큰 차이가 없으나, 공연회차 기준 티켓판매액은 '20년대비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1분기, 연극 시장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 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 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연 극	408	18%	472,596	46%	8,682,782,817	8%

< 2020년~2022년 1분기, 연극 시장 현황 >

연극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건)	408	278	272	47%	50%
공연회차(회)	7,634	5,012	8,522	52%	-10%
티켓예매수(건)	472,596	217,257	347,396	118%	36%
티켓 판매액(원)	8,682,782,817	5,209,650,931	5,704,266,787	67%	52%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 판매액(원)	21,281,330	18,739,752	20,971,569	14%	1%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 판매액(원)	1,137,383	1,039,436	669,358	9%	70%

□ (지역) 올 1분기 연극 공연의 약 72%(294건)는 서울에서 공연되었고, 티켓판매액의 91%(약 76억원)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 부산·대구는 각 24건, 23건(각 약 6%)의 공연이 있었고, 티켓판매액은 부산 지역이 대구보다 약 2%p 높게 나타났다.

< 2022년 1분기, 주요 지역 연극 현황 >

연극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	(건)	(%)	(원)	(%)
서울	294	72%	435,568	92%	7,866,008,877	91%
부산	24	6%	11,431	2%	272,663,308	3%
대구	23	6%	9,019	2%	129,007,080	1%

□ (공연장 규모) 연극 공연의 공연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석 미만의 소공연이 전체의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2년의 300석 이상의 중·대극장의 공연은 '21년 대비 줄었고, '소극장 공연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 연극은 상대적으로 상업연극 성공률이 낮다 보니 규모가 큰 공연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리차드 3세>의 황정민 배우 출연처럼 대형스타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대극장 공연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소극장 공연들이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

< 2022년 1분기, 공연장 규모별 공연 비중 현황 >

연극	2022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1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0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합계	100%	100%	100%	-	-
1,000석 이상	1%	6%	0%	-5%p	1%p
500~1,000석 미만	5%	11%	2%	-6%p	3%p
300~500석 미만	7%	10%	6%	-3%p	1%p
100~300석 미만	65%	59%	66%	6%	-1%p
100석 미만	22%	15%	25%	7%	3%p

□ (대학로) 서울 '대학로'에서 이루어진 연극 공연은 203건으로 전체 연극건수의 약 50%, 티켓판매액은 약 45억으로 전체의 약 53% 이다.

○ 전체적으로 '20년 1분기와 유사하며, '21년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 2022년 1분기, 대학로, 극 시장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 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 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연 극	408	18%	472,596	46%	8,682,782,817	8%
연 대 학 로	203	연극의 50%	349,024	연극의 74%	4,566,600,077	연극의 53%
극 언미리티드	52	연극의 13%	277,033	연극의 59%	2,249,749,155	연극의 6%

< 2020년~2022년 1분기, 연극 - 대학로, 언리미티드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시장 전체 (원)	107,476,296,497	41,768,754,941	71,681,351,698	157%	50%
연극 전체 (원)	8,682,782,817	5,209,650,931	5,704,266,787	67%	52%
연 대 학 로 (원)	4,566,600,077	2,271,397,507	4,162,321,637	101%	10%
극 언미리티드 (원)	2,249,749,155	969,091,914	1,405,902,680	132%	60%

□ (언리미티드) 언리미티드 연극 공연은 52건으로 전체 연극건수의 13%, 티켓판매액은 약 22억으로, '20년 1분기보다 60% 증가했다.

○ 대학로 연극 시장에서는 언리미티드 관객유입이 회복세를 기록하면 대학로 전체 관객 유입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리미티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시 말해 마니아 관객이 아니라 일반관객이 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곧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 하지만, 아직은 외부환경이슈에 민감한 일반관객층이 90% 이상 차지하다 보니 코로나19 이전 관객수를 유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올해 여름 이후 관객유입을 봐야 정확히 회복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시장 집중) 올 1분기 연극 공연 408건 중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티켓판매액은 총 약 50억원으로 연극시장의 약 58%이다.
- 상위권의 작품 대부분이 일반적인 연극보다 객석수나 공연기간, 티켓가격, 공연장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지점에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인다.
 - 연극은 대중적 스타를 통해 연극 관객층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로는 소극장(100석~200석) 언리미티드 공연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어서 매출이 나오는 연극을 하기 위해선 대학로 외 지역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스타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 '22년 1분기, 연극 티켓판매 상위 공연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리처드3세	2022-01-11 ~2022-02-13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라스트 세션	2022-01-07 ~2022-03-20	티오엠씨어터(구. 문화공간필링) 1관
환상동화	2021-12-12 ~2022-02-12	국립극장달오름극장
엘리펀트송	2021-11-26 ~2022-02-13	에스24 스테이지(구. DCF대명문화공장) 3관
한뼘사이	2021-03-19 ~오픈런	라온아트홀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2022-01-18 ~2022-02-27	국립정동극장
플레이백	2022-01-14 ~2022-02-13	성북미디어문화마루꿈빛극장
마우스피스	2021-11-12 ~2022-01-30	대학로아트원씨어터 2관
쉬어매드니스	2016-04-05 ~오픈런	콘텐츠박스(구. 르메이에르씨어터)
언더스터디	2021-12-21 ~2022-02-27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1분기 현장 동향) 코로나19 기간동안에는 공연취소·연기 등으로 주요 신작들도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반면, '22년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연극의 1분기는 지원사업 선정 발표를 기다리는 시기인 동시에 대학 등의 단체관람을 유치하기 힘든 비수기이다. 반면, 신진단체의 인큐베이팅 사업과 상업적 성격이 강한 작품을 선보이는데, 올해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 단, 대학로의 대표 언리미티드(오픈런) 공연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상대적 위축되면서, 대학로 연극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이 연극 시장은 위축된 상황이다.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 대학로 마니아 연극도 뮤지컬 대비 관객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특히, 코로나19로 복지성 소액다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작품의 관점에서 보면, 과정을 중시하는 미완성으로 보이는 작품이 다수 제작되었다.
 - 유통의 관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아직 그 실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작품이 무료로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소비 주체인 관객들 중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 **(향후 전망)** 2분기에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줄어들며 취소되는 공연수도 적어지면서, 일반 관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다만, 시장을 이끌었던 대극장 작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연극열전 시리즈'가 시작되고, 오픈런 공연의 일반관객 증가 등이 예상되어 매출액은 소폭이라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뮤 지 컬

- (뮤지컬 1분기 시장) 올 1분기 뮤지컬 공연은 총 547건, 티켓예매수는 약 13만 건, 티켓판매액은 약 880억원으로 집계된다.
- 뮤지컬 공연건수는 전체의 약 24%이나, 티켓판매액은 전체 공연시장의 약 82%를 차지한다.
 - 최근 3년간 뮤지컬 시장은 코로나19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만, 공연건수 대비 티켓판매액은 '2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공연회차 기준 티켓판매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1분기, 뮤지컬 시장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뮤지컬	547	24%	1,374,429	65%	88,067,248,690	82%

< 2020년~2022년 1분기, 뮤지컬 시장 현황 >

뮤지컬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건)	547	163	334	236%	64%
공연회차(회)	7,238	3,002	6,320	141%	15%
티켓예매수(건)	1,374,429	470,725	1,155,227	192%	19%
티켓판매액(원)	88,067,248,690	32,378,799,330	62,361,582,089	172%	41%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원)	161,000,455	198,642,941	186,711,324	-19%	-14%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원)	12,167,346	10,785,743	9,867,339	13%	23%

- (지역) 올 1분기 뮤지컬의 약 29%(160건)가 서울에서 공연되었고, 티켓판매액의 약 83%(약 734억원)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
- 대부분 서울에서 흥행이 되는 공연 중심으로 대구, 부산에서도 흥행된다.
 - 다만, 지역별 매출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대형 공연의 유치가 가능한 규모있는 뮤지컬 전용 극장을 보유한 도시에서 대중적 시

장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부산에 대형 뮤지컬 전용극장인 '드림시어터'가 들어선 이후 부산이 대구를 역전한 모양이다. 대구에서도 '하데스타운'과 '라이온킹' 공연이 이루어지는데도 부산이 대구를 앞선 것을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 2022년 1분기, 주요 지역 뮤지컬 현황 >

지역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	(건)	(%)	(원)	(%)
서울	160	29%	1,062,570	77%	73,423,208,664	83%
부산	28	5%	46,832	3%	3,515,131,454	4%
대구	22	4%	35,005	3%	2,066,322,550	2%

- (대학로) 올 1분기 대학로에서 공연된 뮤지컬은 총 63편(뮤지컬의 12%)이며 티켓판매액은 약 96억원(뮤지컬의 11%)이다. 대학로 뮤지컬 티켓판매액은 '20년대비 약 61% 증가한 수준이다.

< 2022년 1분기, 뮤지컬 시장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 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뮤지컬	547	24%	1,374,429	65%	88,067,248,690	82%
대 학로	63	12%	241,707	18%	9,611,450,209	11%
언리미티드	24	4%	19,639	1%	367,047,678	0%

< 2020년~2022년 1분기, 뮤지컬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티켓 판매액	2021년 1분기 티켓 판매액	2020년 1분기 티켓 판매액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뮤지컬	88,067,248,690	32,378,799,330	62,361,582,089	172%	41%
대 학로	9,611,450,209	5,036,631,860	5,954,792,420	91%	61%
언리미티드	367,047,678	292,526,597	1,266,748,894	25%	-71%

- (언리미티드) 올 1분기 뮤지컬 중 언리미티드(오픈런) 공연은 총 24건(뮤지컬의 4%)으로, 티켓판매액은 약 3.7억원이다.

- 언미리티트 뮤지컬은 '20년 대비 티켓판매액이 약 71% 감소했다. 주로 소극장, 대중적 성격의 언리미티드(오픈런) 뮤지컬은 코로나

19의 타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여파가 막 시작되던 시기여서 공연이 유지되었으나 지금은 오픈런(언리미티드) 뮤지컬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 코로나19로 공연장 거리두기 좌석제 등이 소극장에도 적용되면서 2년간 제작이 많이 중단되었으며, 올해 다시 재개되더라도 흥행 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가족공연) 올 1분기 뮤지컬 중 가족공연은 총 377건(뮤지컬의 69%)으로 티켓판매액은 약 115억원 이다. 가족공연의 경우, '20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

* 가족공연 : 관람가능 연령에 아동(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포함되는 공연

- 아동 뮤지컬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장르로 증가 추세는 방역 지침 완화로 인한 자연 발생적 순 증가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의 활성화는 내년 겨울시장부터 가능하리라 보인다.

< 2022년 1분기, 뮤지컬 시장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 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 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뮤지컬	547	24%	1,374,429	65%	88,067,248,690	82%
가족공연	377	69%	434,036	32%	11,538,351,960	13%

< 2020년~2022년 1분기, 뮤지컬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티켓 판매액	2021년 1분기 티켓 판매액	2020년 1분기 티켓 판매액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뮤지컬	88,067,248,690	32,378,799,330	62,361,582,089	172%	41%
가족공연	11,538,351,960	615,514,088	4,625,408,462	1,775%	149%

□ (내한공연) 올 1분기 중 해외에서 국내 투어(내한) 뮤지컬 공연 3개 작품의 티켓판매액은 전체 뮤지컬 전체의 약 18% 차지한다.

* 내한공연 : 뮤지컬 해외 오리지널 작품, 해외 연주자 등 해외작품·예술가가 한국에서 공연하는 공연

- '20년~'21년은 코로나19로 해외이동 제약이 있었고, 공연장 거리

두기 등으로 관객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산술적으로 '22년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해외투어 공연의 형태상 대형 공연장에서의 방역 지침 완화는 바로 대중적 관객 증가로 이어지는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1분기에는 세계적인 뮤지컬 <라이온킹> 내한공연의 영향이 컸다.

< 2022년 1분기, 뮤지컬 시장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뮤지컬	547	100%	1,374,429	100%	88,067,248,690	100%
뮤지컬 내한공연	3	1%	118,472	9%	15,515,516,140	18%

< 최근 3년간 1분기, 뮤지컬 내한공연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뮤지컬 전체 (원)	88,067,248,690	32,378,799,330	62,361,582,089	172%	41%
뮤지컬 내한공연 (원)	15,515,516,140	4,361,095,800	7,365,498,602	256%	111%

- (공연장 규모) 뮤지컬 공연의 공연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별 공연건수 비중이 비교적 고르다.

- '22년 300석 미만의 소극장 공연은 '20년, '21년보다 줄었으나, 500석 이상의 중·대극장 공연은 다소 증가했다.
- 500-1000석 공연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문예회관에 중극장 규모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에서 뮤지컬 공연 시도가 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다만, 이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일지, 일시적 현상일지는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2022년 1분기, 공연장 규모별 공연비중 현황 >

뮤지컬	2022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1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0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1,000석 이상	19%	16%	11%	3%p	8%p
500~1,000석 미만	30%	20%	15%	10%p	15%p
300~500석 미만	21%	19%	23%	2%p	-2%p
100~300석 미만	26%	37%	46%	-11%p	-20%p
100석 미만	5%	7%	5%	-2%p	0%p

- (시장 집중) 올 1~2월 동안의 뮤지컬 공연 547건 중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티켓판매액은 총 53억원으로 뮤지컬 시장의 약 60%이다.
 - 상위 공연은 수년 전부터 흥행을 이어오던 공연이다. 대형공연장과 티켓파워를 갖춘 배우캐스팅 등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재공연이 늘면서, 최근 성장하고 있던 창작뮤지컬이 코로나19로 다소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2022년 1분기, 뮤지컬 티켓판매 상위 공연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서울]	2022-01-26 ~2022-03-18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지킬 앤 하이드	2021-10-19 ~2022-05-08	샤롯데씨어터
레베카	2021-11-16 ~2022-02-28	충무아트센터대공연장
프랑켄슈타인	2021-11-24 ~2022-02-20	블루스퀘어신한카드홀
하데스타운	2021-09-07 ~2022-02-27	LG아트센터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 편	2021-11-13 ~2022-02-20	광림아트센터BBCH홀
빌리 엘리어트	2021-08-31 ~2022-02-13	디큐브아트센터디큐브씨어터
엑스칼리버	2022-01-29 ~2022-03-13	세종문화회관
팬레터	2021-12-10 ~2022-03-20	코엑스아티움
썸씽로튼	2021-12-23 ~2022-04-10	유니버설아트센터

- (1분기 현장 동향)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뮤지컬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최근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타 장르에 비해 충성도 높은 마니아 중심의 특징이 코로나 기간에도 시장을 유지해 주었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30대 관객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20대 관객 증가를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나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젊은이들이 공연 관객으로 유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특이한 점은 1분기 대학로에서 창작뮤지컬 초연작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시장이 위기였을 때는 안정적인 재공연을 많이 올리는 반면 시장이 활기를 찾을 때 초연작들이 있던 그동안의 경향과 차이가 다소 있다.
 - 또한, 라이선스 등 기존 뮤지컬을 재공연의 형태로 팬덤층이 두터운 배우 캐스팅하여 오픈런 형태의 공연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 (향후 전망) 뮤지컬은 비교적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 2분기에는 대형 창작뮤지컬 마타하리, 모래시계, 웃는남자 등이 포진하고 있어서 창작뮤지컬이 판매순위 상위권에 오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 또한, 부산에서 '라이온킹' 해외투어공연이 시작되기도 하여 부산 뮤지컬 시장의 도약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클래식

- (클래식 1분기 시장) 올 1분기 클래식 공연건수는 총 1,108건, 티켓예매수는 약 27만 건, 티켓판매액은 약 81억원으로 집계된다.
- 클래식 분야는 전반적으로 공연건수와 티켓예매수에 비해 티켓매출액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22년 1분기 티켓판매액은 '20년보다 약 191%, '21년보다 119% 증가했다.
 - 클래식이 공연건수에 비해 티켓매출액이 적은 것은 귀국독주회 등 일반 관객이 찾지않는 강사·교수 지원용 음악회 영향이 있다.
 - 공연건수 대비 티켓판매액, 공연회차 대비 티켓판매액은 '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년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 2022년 1분기, 클래식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클래식	1,108	48%	275,758	13%	8,195,762,040	7.6%

< 2020년~2022년 1분기, 클래식 시장 현황 >

클래식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건)	1,108	658	396	68%	180%
공연회차 (회)	1,218	704	423	73%	188%
티켓예매수(건)	275,758	131,867	170,213	109%	62%
티켓판매액(원)	8,195,762,040	3,748,430,980	2,819,442,872	119%	191%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원)	7,396,897	5,696,704	7,119,805	30%	4%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원)	6,728,869	5,324,476	6,665,350	26%	1%

- (내한공연) 클래식 내한공연은 총 10건으로 티켓판매액은 약 8.2억원으로 클래식 티켓판매액의 약 10% 수준이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적용에 따른 영향으로 내한공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클래식은 1회차 공연이 대부분이어서 오랜 격리 기간을 감당하고 내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22년 1분기에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자가격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에서도 내한 가능했던 랑랑, 크리스티안 짐머만 등 '특급 독주자'들의 내한 공연이 티켓 판매에 상위에 링크되었다.

< 2022년 1분기, 클래식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클래식	1,108	48%	275,758	13%	8,195,762,040	7.6%
클래식-내한	10	클래식의 1%	7,842	클래식의 3%	821,108,000	클래식의 10%

- (공연장 규모) 클래식 공연의 공연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석 이상의 중·대공연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 보통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공연장 주최, 기획사 제작, 예술단체의 주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 500석은 넘어야 솔로 공연 외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30석~50석 정도의 작은 공연장(카페, 미술관, 기타)에서 클래식 공연이 늘고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내 연주로 커리어를 쌓을 수밖에 없는 젊은 연주자들의 한계와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 2022년 1분기, 공연장 규모별 공연건수 현황 >

클래식	2022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1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0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1,000석 이상	25%	23%	21%	2%P	4%P
500~1,000석 미만	19%	20%	23%	-1%P	-4%P
300~500석 미만	34%	38%	46%	-4%P	-12%P
100~300석 미만	13%	10%	6%	3%P	7%P
100석 미만	8%	9%	5%	-1%P	3%P

- (시장 집중) 올 1월 동안의 클래식 공연 1,108건 중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티켓판매액은 총 36억원으로 클래식 시장의 약 44% 이다.
 - 사회 변화양상에 따라 클래식 시장은 정통 클래식, 팝콘서트형, 미디어 결합형 공연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통적인 클래식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특급 아티스트들이 정통적인 공간에서 펼치는 '클래식의 정수', 미디어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장르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탈정통적인 공간에서 펼치

는 ‘팝콘서트형 공연’, 영화음악, 게임음악 등 ‘미디어와의 결합형’ 클래식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 크리스티안 짐머만, 랑랑 등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들의 내한공연은 클래식 골수팬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특히,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자가격리 7일을 감수하고 총 6회의 내한공연을 펼쳐 티켓판매 상위에 올랐다.
- 전반적으로 TV나 유튜브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클래식 공연티켓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포레스텔라, 미라클라스, 라포엠 등은 tv 팬텀싱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으며 팬덤을 기반으로 티켓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외에 게임, 영화등과 연계한 필름 콘서트, 영상 콘텐츠들이 관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 2022년 1분기, 클래식 티켓판매 상위 공연 - 방송, 영화음악 외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2022-03-01~2022-03-06	롯데콘서트홀
랑랑 피아노 리사이틀	2022-02-23~2022-02-2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패키지)	2022-01-12~2022-12-14	롯데콘서트홀
일리아 리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협주곡	2022-03-30~2022-03-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2022-02-05~2022-02-0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박쥐 [대구]	2022-01-20~2022-01-29	대구오페라하우스
어바웃 라흐마니노프	2022-01-22~2022-01-22	롯데콘서트홀
제775회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22-02-26~2022-02-26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pring Concert: 새 시대 새 희망을 열다	2022-03-26~2022-03-26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 오스모 벤스케의 모차르트 레퀴엠 1	2022-01-29~2022-01-29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2022년 1분기, 클래식 티켓판매 상위 공연 - 방송, 영화음악 포함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2022-03-01~2022-03-06	롯데콘서트홀
포레스텔라 콘서트: The Royal in Seoul (앵콜)	2022-02-19~2022-02-20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펜싱경기장)
포레스텔라 콘서트: The Royal in Daegu	2022-01-22~2022-01-23	엑스코(exco) 컨벤션홀 (5층)
라포엠 단독 콘서트: ECLIPSE [서울]	2022-02-05~2022-02-06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랑랑 피아노 리사이틀	2022-02-23~2022-02-2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2022-03-12~2022-03-13	롯데콘서트홀
미라클라스 콘서트: REBOOT [서울]	2022-03-05~2022-03-06	세종대학교 대양홀
라포엠 단독 콘서트: ECLIPSE [전주]	2022-01-15~2022-01-16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포레스텔라 조민규 첫 단독콘서트: 신세계 : PARANA	2022-01-08~2022-01-09	블루스퀘어 Mastercard Hall(구.아이마켓홀)
라포엠 단독 콘서트: ECLIPSE [부산]	2022-01-22~2022-01-23	드림씨어터 [부산]

□ (1분기 현장 동향)

- 클래식 시장은 '20년~'21년 여름까지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다. '21년 가을부터 공연에 목마른 관객들의 보복소비 심리 등의 영향으로 거리두기 좌석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연들이 매진사례를 이루며 클래식 공연계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 또한,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미디어를 통해 탄생한 스타들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기존 순수 클래식 장르의 티켓 매출을 견인했던 해외 유명 아티스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급감한 상황에서 TV프로그램 팬텀싱어 출신으로 유명세를 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유료 매표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클래식 공연 장소 역시 예술의전당, 롯데 콘서트홀 등을 벗어나 벅스코, 올림픽홀 등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 (코로나19) 클래식 분야의 코로나19 영향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 내한공연의 부재로 국내 연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했다.
 - 코로나 이전에 해외연주자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다면 코로나 이후 대체공연으로 실력있는 국내연주자의 공연이 매진을 이루게 된 경우가 많았다.
 - 여기에는 또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많은 한국 연주자들이 해외공연장이 섰다운되면서 귀국하여 국내무대를 찾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국내 연주자의 수준이 매우 높아진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스타만이 있었다면, 최근 주요 콩쿠르 우승자 등 세계적 수준의 연주자가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다.
- 온라인 클래식 공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코로나 이전에는 음향에 매우 민감한 클래식 공연의 특성상, 음반사의 녹음이나 전문 공연장에서의 완벽한 환경 외에서의

녹음·녹화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연주자들이 계속된 공연의 취소 등으로 방구석 클래식, 유튜브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연물을 스스로 제작하게 되었다.

- 이는 온라인에서 다른 콘텐츠와의 경쟁에 뛰어들어 결과를 초래하여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 (향후 전망) 2분기는 더욱 많은 공연이 진행되면서 클래식 시장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2분기에는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 서울스프링 실내악 축제, 소극장 오페라 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공공 페스티벌이나, 마우리치오 폴리니, 유자왕, 미샤 마이스키 등 다수의 해외 유명 스타들의 내한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가격리 면제로 해외 오케스트라의 내한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 한편, 또모, 뮤라벨 등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기반 클래식 공연의 흥행 성공 또한 기존 클래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무 용

- (무용 1분기 시장)을 1분기 무용 공연은 총 51건, 티켓예매수는 약 2만 건, 티켓판매액은 약 4.7억원으로 집계된다.
- 전체 공연 중 무용 장르의 공연건수는 2%, 공연회차는 1%, 티켓판매액은 약 0.4%이다.

< 2022년 1분기, 무용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 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무용	51	2%	21,158	1%	471,711,500	0.4%

< 2020년~2022년 1분기, 무용 시장 현황 >

무용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건)	51	49	37	4%	38%
공연회차(회)	93	98	68	-5%	37%
티켓예매수(건)	21,158	16,214	15,454	30%	37%
티켓판매액(원)	471,711,500	323,892,900	589,847,400	46%	-20%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원)	9,249,245	6,610,059	15,941,822	40%	-42%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원)	5,072,167	3,305,030	8,674,226	53%	-42%

- '22년 1분기 무용 공연건수는 '20년 37건 대비 38% 증가했으나, 티켓판매액은 오히려 약 20% 감소했다.
- 이는 전체 무용공연 건수로 볼 때 그 수가 적어 비주류에 속하는 △티켓단가가 높은 대형 발레의 축소 △티켓구매력 높은 상업 무용공연의 축소가 낳은 결과로 보인다.
 - '20년 1~2월은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지방투어, 유니버설 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선원 내한공연, 이고르 모이세예프 발레단 내한공연 등 다양한 대극장 발레의 전국 공연이 있었다.
- '21년 1분기는 '20년에 비해 공연건수가 32% 증가했음에도, 티켓판매액은 45%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공연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극장 발레 공연이 단 1건으로 대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 반면 대극장 발레/상업 공연이 재개된 '22년 1분기는 '21년과 전체 공연건수는 유사함에도, 티켓판매액이 46% 증가하였다.
 - 유니버설발레단의 <춘향>, 국립발레단의 <주얼스>, <해적> 등이 재개되었고, 유명 단체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홀라당>, LDP무용단 정기공연 등이 대극장, 다회차로 공연된 영향으로 보인다.
 -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판매액 모두 '20년보다는 약 40%가 감소했으나, '21년보다는 약 40%이상 증가했다.
- (시장 집중) 올 1~2월 동안의 무용 공연 51건 중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티켓판매액은 총 3.6억원으로 무용 시장의 약 78% 이다.
- 무용은 타 장르에 비해 티켓파워를 지닌 소수 단체가 시장을 점유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무용 내 세부장르의 대중화 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 발레공연은 뮤지컬, 연극처럼 어느 정도의 티켓파워를 지닌 반면, 현대무용·한국무용은 공연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다.
 - 이날치밴드와의 협업으로 관심을 모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댄싱9 이후 인기를 얻은 LDP 등 인지도 있는 일부 스타 무용수와 유명단체를 제외하면 공연관계자를 제외한 일반관객 대상 티켓파워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 2020년~2022년 1분기, 무용 티켓판매 상위 공연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유니버설발레단, 춘향	2022-03-18 ~2022-03-2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해적[대전]	2022-03-24 ~2022-03-25	대전예술의전당 대극장
주얼스	2022-02-25 ~2022-02-27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MOVEMENT: 이현정안무가데뷔10주년기념안무콘서트	2022-03-13 ~2022-03-14	백암아트홀
22nd Laboratory Dance Project, Ash	2022-03-24 ~2022-03-27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홀라당!	2022-02-18 ~2022-02-20	예술의전당Q토월극장
창작산실, 조동	2022-02-05 ~2022-02-06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춤추는 팬더 [하남]	2022-02-19 ~2022-02-19	하남문화예술회관 검단홀(대극장)
튀마루무용단정기공연, Identity	2022-03-19 ~2022-03-20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새날	2022-01-29 ~2022-02-02	국립극장 하늘극장

- 상위 3개 공연은 국내 양대 발레단(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의 전막발레로 영세 소극장 무용공연에 비해 극장 규모가 매우 크고 회차가 많다. 양대 발레단과 그 외 단체의 티켓파워는 비교 불가할 정도다.
 - 따라서 무용 티켓판매 상위권은 양대 발레단이 점유하곤 하는데, '22년 1분기는 양대 발레단의 공연이 단 3건으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공연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 LDP 현대무용단의 정기공연인 <22nd Laboratory Dance Project, Ash>와 창작산실 일환으로 공연된 <조동>이 순위에 있다.
 - <조동>은 김성훈댄스프로젝트라는 단체명으로 공연됐으나 안무가 김성훈을 비롯한 출연자가 LDP 출신이거나 현 구성원으로 LDP의 팬덤을 관객층으로 수용해 티켓판매 상위권을 차지했다.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홀라당!>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공연예술창작지원(3년 지원)을 받은 공연이었다.
 - 본 사업의 첫해년도 수혜자로 <홀라당!>은 3년간 지원을 받아 마지막 결실을 맺은 공연이며, 지원을 받은 사업(공연)은 보통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므로 1~3월이 민간단체가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데 중장기공연예술창작지원으로 2월에 민간단체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원사업의 패턴으로 1~4월이 항상 '공연 비수기'이지만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인해 민간단체가 프로덕션의 기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 <새날>은 국립무용단의 설날 전통 무용공연으로, 다년간 지속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차트에 오른 유일한 한국무용 공연이다.

□ (1분기 현장 동향) 무용 현장에서의 체감은 공연건수와 공연회차에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 무용공연의 개최 여부는 물론 개별 단체의 기획의사와 연결되긴 하지만 지원기관의 지원금 선정 건수와 직결된다.

- 즉,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기관이 지원건수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무용공연 건수에는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무용공연이 환경과 무관하게 '수행해야 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이다.

- 또한, 상반기에 무용 장르의 공연시장이 특히나 저조한 이유는, 연말부터 연초(약 3월까지)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공모기간이기 때문이다. 보통 1~3월은 민간단체 보다는 한국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 공연, 국립단체 공연이 있다.

○ 공식 예매사이트를 거치는 'KOPIS 집계 공연'의 '20년도 공연건수에 비해 실제 공연건수의 축소는 크지 않았다.

-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화된 '21년 공연건수는 연극, 뮤지컬이 매우 위축된 데 비해 무용은 오히려 38% 증가했다.

- '20~'21년은 예매가 필요없는 온라인 무료 공연(스트리밍 혹은 녹화본)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졌기에 KOPIS 집계 공연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향후 전망)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공연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20년 2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겨울은 비시즌으로 무용공연이 축소되는 시기이다. 통상 3월부터 공연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상반기 공연수는 4~6월에 피크를 이룬다. 이에 따라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공연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발레 공연을 비롯한 대극장 공연이 여럿 예정되어 있어 티켓예매수를 비롯한 티켓판매액이, 대극장 발레 공연 전면 중단에 가까웠던 '20년 2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악

- (국악 1분기 시장)을 1분기의 국악 공연은 총 148건, 티켓예매수는 약 3만건, 티켓판매액은 약 1.6억원으로 집계된다.
- 전체 공연시장 중 국악 장르의 공연건수는 전체의 6%, 티켓판매액은 약 1.5%이지만, 최근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
 - '22년 1분기는 국악 공연의 티켓판매액은 '20년에 비해 1,027% 증가, '21년에 비해 1,871%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세이다.
 - 특히, 공연건수, 공연회차 기준 티켓판매액이 '21년대비 약 1,000%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판매액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코로나19의 회복 수준을 넘어, 최근 국악이 대중음악, 재즈 등 요소를 결합하는 추세이며, 최근 방송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받아 국악의 대중적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1분기, 국악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현황 >

구분	공연건수		티켓예매수		티켓 판매액	
	(건)	비중(%)	(건)	비중(%)	(원)	비중(%)
전체	2,296	100%	2,185,637	100%	107,476,296,497	100%
국악	148	6%	30,506	1%	1,629,007,750	1.5%

< 2020년~2022년 1분기, 국악 시장 현황 >

국악	2022년 1분기	2021년 1분기	2020년 1분기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건)	148	91	48	63%	208%
공연회차(회)	263	163	171	61%	54%
티켓예매수(건)	30,506	10,562	16,744	189%	82%
티켓 판매액(원)	1,629,007,750	82,637,700	144,594,400	1,871%	1,027%
공연건수 기준 평균 티켓 판매액(원)	11,006,809	908,107	3,012,383	1,112%	265%
공연회차 기준 평균 티켓 판매액(원)	6,193,946	506,980	845,581	1,122%	633%

□ (공연장 규모) 국악 공연의 공연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0석 이상의 중·대형 공연이 증가하고 있다.

- 국악계 특유의 국가·시립에 의해 의무적으로 기획·진행되는 공연들이 아니라, 국악계를 둘러싸고 점차 형성되고 있는 '시장 의존형' 공연들이다.
- 이러한 공연들은 작은 규모의 앙상블이나 개인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공연과 기획·홍보·유통·대관 등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 모객에 도움되는 대중성을 탑재한 출연진(기획), 인터파크나 YES24 등의 예매 사이트를 통해 홍보망과 티켓 유통망을 빠르게 개설하는 속도(홍보·유통)를 보여준다.

< 2022년 1분기, 공연장 규모별 공연건수 현황 >

국악	2022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1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020년 1분기 공연건수 비중(%)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20년 대비 22년 증감율
1,000석 이상	16%	5%	8%	11%p	8%p
500~1,000석 미만	22%	20%	19%	2%p	3%p
300~500석 미만	9%	10%	15%	-1%p	-6%p
100~300석 미만	48%	63%	54%	-15%p	-6%p
100석 미만	5%	2%	4%	3%p	1%p

- 더불어 코로나 시국의 거리두기 객석 운영은 시장 의존형 국악 공연이 어쩔수 없이 대형공연장을 대관하도록 한 조건 중 하나다.
- 더 많이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빈 좌석'을 계산하여, 좌석 수가 많은 대형 공연장을 선택한 것이다. 대형 공연장을 선택해도 티켓 수익은 중극장 규모로만 그친다.

□ (시장 집중) 올 1~2월 동안의 국악 공연 148건 중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티켓판매액은 총 1.4억원으로 뮤지컬 시장의 약 91%이다.

- 상위 공연은 TV프로그램의 영향이 있는 '풍류대장'을 포함했을 경우와,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극명하게 구분된다.
- 뮤지컬 시장에 비해 국악계는 '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작은 규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시장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을 위한 파워 형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음악가들의 음악적인 문제로만 국한했다. 반면 지금은 '시

장'을 형성하는 기획, 홍보, 미디어 파워, 새 스타일과 유행 창출, 소비 관객 파악, 산업성 탑재 등등 보다 넓은 안목과 보폭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국악공연계의 협소함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자극제가 될수도 있다.

< 2022년 1분기, 국악 티켓판매 상위 공연 - 전체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부산]	2022-01-15 ~2022-01-15	드림씨어터[부산]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전주]	2022-02-05 ~2022-02-05	한국소리문화의전당모악당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광주]	2022-02-19 ~2022-02-19	광주여자대학교유니버시아드 체육관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춘천]	2022-02-12 ~2022-02-12	강원대학교백령아트센터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 [진주]	2022-01-22 ~2022-01-22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풍류대장전국투어콘서트[성남]	2022-03-05 ~2022-03-0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풍류대장전국투어콘서트[고양]	2022-03-12 ~2022-03-12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장사익X 고영열콘서트: 끈[성남]	2022-01-02 ~2022-01-0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장사익X 오정해콘서트: 끈[고양]	2022-03-27 ~2022-03-27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이희문컴퍼니, 강남오아시스	2022-02-18 ~2022-02-20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 2022년 1분기, 국악 티켓판매 상위 공연 - 풍류대장 관련 공연 외 >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장사익 X 고영열 콘서트: 끈 [성남]	2022-01-02 2022-01-02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장사익 X 오정해 콘서트: 끈 [고양]	2022-03-27 2022-03-27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이희문컴퍼니, 강남오아시스	2022-02-18 2022-02-20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이날치: 수궁가 [진주]	2022-03-18 2022-03-18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Spring Concert: 꽃 피는 봄 [안동]	2022-03-31 2022-03-31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선생님이 들려주는 국악이야기	2022-02-20 2022-02-20	국립국악원 예악당
명품 [영천]	2022-03-20 2022-03-20	영천시민회관 스타홀
신춘음악회: 봄노래 꽃노래	2022-03-12 2022-03-12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신년콘서트: 남상일의 놀다歌 show [경주]	2022-01-26 2022-01-26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화랑홀)
토요명품	2022-01-08 2022-12-24	국립국악원 우면당

□ (1분기 현장 동향) 국악계는 공연 '시장'보다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장르다. 한마디로 비인기 장르다. 그러하기에 '보존' '전승' '계승' 등의 명목으로 국립·시립 등 기관지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높다.

○ 국립·시립의 지원의 잠깐의 휴지기를 갖는 1·2월은 공연이 줄고, 국악공연의 활성화는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3월부터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티켓판매 상위를 차지한 1·2월은 국립·시립의 지원금보다 공연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연들이다.

- 대표적인 경우가 '풍류대장 전국투어 콘서트'와 시장과 대중으로부터 '입증'받은 국악예술가들의 활약과 움직임은 그동안 국립·시립의 예산과 지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하여 자체적인 시장성을 만들

어가고 있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다.

- 이러한 존재와 움직임을 놓고 국악계는 일장일단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업성과 공연 스타일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 점차 국립·시립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작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약은 1분기만 도드라질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연이 많지 않은 1·2·3월에 이들의 활동과 공연은 현재 국악을 둘러싼 시장의 흐름과 관객들의 수요와 소비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코로나19)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영상과 이를 유포하는 인터넷 세계는 국악예술가들이 택한 ‘임시 망명지’라 할 수 있다.
- 잠깐의 도피처였지만, 국악예술가들은 공연을 위한 국립·시립의 지원금을 전환하여 영상물들을 제작했다.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국악예술가들은 그 힘과 스타일을 영상에도 반영했다. 관객들은 무상의 경로를 통해 많은 수의 국악 영상물(비대면 공연 콘텐츠)을 접할 수 있었다. 호황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 끌기에는 나름의 성공을 거둔 시간이다.
- 과거에는 전승 계승 중심의 정통국악을 일컫는 ‘순수국악’과, 창작중심의 ‘창작국악’(=‘현대국악’)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티켓판매 상위 공연을 차지한 ‘창작국악’의 지형도를 보면 국악계 내적 토양을 다지는 ‘순수 창작국악’보다 ‘시장 중심의 창작국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창작국악’도 ‘순수’와 ‘시장 중심’이라는 장르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위 공연들을 차지한 ‘시장 중심의 창작국악’은 온라인 공연 제작·유통망, 시장에 의존하면서 그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것이고, 기존의 ‘국악’과 ‘순수 창작국악’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양분성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 (향후 전망) 공연장과 예술가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국가·시립의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4·5·6월은 늘 그러하듯 공연이 양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시장 중심형 창작국악’의 인기와 질주는 계속될 것이며, 자체적인 티켓 판매와 변화의 곡선을 그려나갈 것이다.
- 1분기 국악 티켓판매액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공연이 전국으로 유통된다는 사실이다. 국악계는 새로운 공연과 예술가가 나온다 해도 한 공연장에서의 단일·단회 공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공연이 2·3일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다. 1일 1공연장 1회가 대부분이다.
- 그런 점에서 풍류대장, 고영열, 장사익 등의 상승세는 하나의 콘텐츠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 현상을 보여준다. 물론 콘텐츠가 담보하고 있는 상업성, 시장성이 유통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전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때로는 유통망과 공급망의 확장을 통해 예술가는 명성을 얻고, 장르가 부상되기도 한다.
- 따라서 「국악 티켓판매」에 대한 분석과 지표는 향후 하나의 공연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뿌려지고, 유통되는지도 잘 보여주면 좋겠다.

붙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티켓시스템 연계 현황 [총162개]

NO	구분	기관명
1	예매처	NHNET티케팅크
2	예매처	나눔티켓
3	예매처	대학로티켓닷컴
4	예매처	에스24
5	예매처	옥션
6	예매처	인터파크
7	예매처	클럽서비스주식회사
8	예매처	플레이티켓
9	예매처	11번가
10	예매처	G마켓
11	예매처	KT멤버십공연
12	예매처	남양주티켓예매시스템
13	예매처	네이버N예약
14	예매처	농협채움스케치
15	예매처	멜론티켓
16	예매처	삼성카드컬처
17	예매처	스테이지톡
18	예매처	신한카드 올댓컬처
19	예매처	엔티켓
20	예매처	클럽발코니
21	예매처	쿠팡
22	예매처	코스타(Coaster)
23	예매처	위메프
24	예매처	티몬
25	예매처	BC페이북(BC플랫폼)
26	예매처	사운드프렌즈
27	예매처	이재이컴퍼니
28	예매처	타임티켓
29	기획제작사	PMC
30	기획제작사	극단어린이왕자
31	기획제작사	쇼노트
32	기획제작사	달컴퍼니
33	기획제작사	Nticket(선원)
34	기획제작사	신시컴퍼니
35	공연시설	LG아트센터
36	공연시설	강동아트센터
37	공연시설	경기아트센터
38	공연시설	구로문화재단
39	공연시설	국립국악원
40	공연시설	국립극장
41	공연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2	공연시설	김해문화재단
43	공연시설	대구오페라하우스
44	공연시설	두산아트센터
45	공연시설	마포아트센터
46	공연시설	세종문화회관
47	공연시설	예술극장
48	공연시설	정동극장
49	공연시설	유니버설문화재단
50	공연시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1	공연시설	국립극단
52	공연시설	극장용
53	공연시설	광명문화재단
54	공연시설	CJ아지트
55	공연시설	CK아트홀
56	공연시설	KOUS한국문화의집(한국문화재단)
57	공연시설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58	공연시설	강릉아트센터
59	공연시설	거창문화재단
60	공연시설	경남문화예술회관

NO	구분	기관명
61	공연시설	경산시시민회관
62	공연시설	경주예술의전당
63	공연시설	고창문화의전당
64	공연시설	공주문예회관
65	공연시설	광산문화예술회관
66	공연시설	광주문화예술회관
67	공연시설	국립부산국악원
68	공연시설	군포문화예술회관
69	공연시설	군포문화재단
70	공연시설	금산다락원
71	공연시설	금호아트홀(금호아시아문화재단)
72	공연시설	김천문화예술회관
73	공연시설	노원문화예술회관
74	공연시설	논산시문화예술회관
75	공연시설	당진문화의전당
76	공연시설	대구문화예술회관
77	공연시설	대전예술의전당
78	공연시설	동래문화회관
79	공연시설	드림씨어터(부산)
80	공연시설	댄싱공연장(원주문화재단)
81	공연시설	치악예술관(원주문화재단)
82	공연시설	롯데콘서트홀
83	공연시설	문경문화예술회관
84	공연시설	문산행복센터
85	공연시설	민속극장풍류(한국문화재단)
86	공연시설	보령문화예술회관
87	공연시설	봉산문화회관
88	공연시설	부산문화회관
89	공연시설	부산시민회관
90	공연시설	샤롯데씨어터
91	공연시설	서산시문화회관
92	공연시설	속초문화회관
93	공연시설	술가람아트홀
94	공연시설	수원시립예술단
95	공연시설	신세계문화홀
96	공연시설	아산문화재단
97	공연시설	아트센터인천
98	공연시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99	공연시설	양산문화예술회관
100	공연시설	영천시민회관
101	공연시설	영화의전당
102	공연시설	예산군문화회관
103	공연시설	예술마루
104	공연시설	영덕문화관광재단(예주문화예술회관)
105	공연시설	예천문화회관
106	공연시설	운정행복센터
107	공연시설	울산문화예술회관
108	공연시설	울산중구문화의전당
109	공연시설	의정부문화재단(의정부예술의전당)
110	공연시설	의령군민문화회관
111	공연시설	인천문화예술회관
112	공연시설	종로아이들극장
113	공연시설	창녕문화예술회관
114	공연시설	창작공간아르쉴(춘천문화재단)
115	공연시설	청양문화예술회관
116	공연시설	축제극장몸짓(춘천문화재단)
117	공연시설	춘천문화예술회관
118	공연시설	춘천시립예술단
119	공연시설	충주시문화회관
120	공연시설	콘서트하우스(충북)

NO	구분	기관명
121	공연시설	태안군문화예술회관
122	공연시설	파주시민회관
123	공연시설	평창대관령음악제
124	공연시설	학전소극장
125	공연시설	함양문화예술회관
126	공연시설	현대예술관
127	공연시설	홍주문화회관
128	공연시설	고양아람누리(고양문화재단)
129	공연시설	고양어울림누리(고양문화재단)
130	공연시설	김정문화회관(서귀포)
131	공연시설	서귀포예술의전당
132	공연시설	제주아트센터
133	공연시설	해운대문화회관
134	공연시설	성동구문화재단(성수아트홀, 소월아트홀)
135	공연시설	충남문화재단
136	공연시설	부천문화재단
137	공연시설	성주군문화예술회관
138	공연시설	제주문화예술진흥원
139	공연시설	금정문화회관
140	공연시설	인천서구문화회관
141	공연시설	밀양문화재단
142	공연시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3.15아트센터
143	공연시설	성산아트홀(창원문화재단)
144	공연시설	진해문화센터
145	공연시설	화강문화센터
146	공연시설	상주문화회관
147	공연시설	부산문화포털다봄
148	공연시설	부천시립예술단
149	공연시설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150	공연시설	함안문화예술회관
151	공연시설	과천시민회관(과천문화재단)
152	공연시설	울주문화예술회관
153	공연시설	영도문화예술회관
154	공연시설	을숙도문화회관
155	공연시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156	공연시설	유스퀘어문화관
157	공연시설	이천아트홀
158	공연시설	웃는얼굴아트센터(달서문화재단)
159	공연시설	군위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160	공연시설	장성문화예술회관
161	공연시설	거제문화예술회관
162	공연시설	서울주문화센터